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硏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면의 硏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 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硏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硏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硏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硏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硏究業積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硏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 月

凡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一、明代의 만주、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다만、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一、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상항을 관련시켰다。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머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一、索引 一卷을 人名、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一、원본에는 異字、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둘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活字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가、俗字、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그러나、더러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나、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潜·潛·濳·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다。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贊欵 따위。그러나、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곁에 그 교정 정오를 [illegible]었다。다만、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싶어서 [illegible] 그리고、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의식적으로 한 慣用(音通을 포함) 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illegible](マヽ)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揭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illegible]록 힘썼다。

가、○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즉、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揭出한 경우이다。

나、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揭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즉、先行[illegible]는 기사의 머리에 揭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의 간극이 없을 때에는、이 干支를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干支先行——干支後續○〔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揭出하지 않고、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즉、先行干支와 後續干支 사이에 日次의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를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愼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기재를 보존하였다。

라、그리고、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둘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다만、「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揭出하여 干支〔 〕(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 仁 文 化 社

目　次

中宗實錄

中宗三年(正德三年)……一
中宗四年(正德四年)……一四
中宗五年(正德五年)……三三
中宗六年(正德六年)……五〇
中宗七年(正德七年)……五四
中宗八年(正德八年)……八四
中宗九年(正德九年)……九八
中宗十年(正德十年)……一一〇
中宗十一年(正德十一年)……一三八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中宗十二年（正德十二年）……一六九
中宗十三年（正德十三年）……一八七
中宗十四年（正德十四年）……二〇五
中宗十五年（正德十五年）……二一〇
中宗十六年（正德十六年）……二四〇
中宗十七年（嘉靖元年）……二四六
中宗十八年（嘉靖二年）……二六八
中宗十九年（嘉靖三年）……三四五
中宗二十年（嘉靖四年）……四一三
中宗二十一年（嘉靖五年）……四五五
中宗二十二年（嘉靖六年）……四八六
中宗二十三年（嘉靖七年）……四九一

中宗實錄　卷五

三年正月

己亥朔○御勤政殿宴群臣倭野人亦與焉

三年二月

丁丑○咸鏡北道節度使辛允武馳啓野人入慶興地搶(搶カ)評事迎逢軍十餘名而去

○辛卯御朝講〔中略〕掌令金克福獻納閔愼〕又啓許輯辛允武等事特進官洪景舟曰臺諫所啓撫夷堡人物被擄雖云十五名安知有匿不以聞者乎先王朝重邊事故評事並治罪今辛允武果有罪焉第以廢朝北道罷弊貿易皮物不可勝計民持一牛換一貂皮牛馬幾盡往時騎馬軍士可千餘名今則僅有四五十名雖有邊警將何以

扞禦辛允武在京常慮此事及赴任凡軍士弊事一切祛之觀察使高荊山亦知邊事與允武同力措置今雖罷其職得可代者難矣不如不遞克福等反覆論啓皆不允〔略下〕

甲午○兼執義李堉拜辭後啓曰咸鏡道撫夷堡族親衛韓義善告狀云彼人骨看羅者等三十餘人居撫夷堡江邊累年矣丙寅八月甲士李根生所放牛一隻浮江越去尋蹤刷還後其堡鎭撫朴有昌等招城底彼人朴雄古守令軍士多奪羅者等皮物羅者不勝憤悶逃歸北地近日入寇必此人也鎭撫等侵虐彼人致開邊釁推考似可傳曰其並推之

〔參〕甲午○〔上略〕以安潤孫爲咸鏡北道節度使

〔參〕乙未○兵曹啓曰防禦事緊將帥皆遞令觀察使領軍以備北道何如傳曰可

〔參〕丁酉○領議政柳洵等詣賓廳合辭啓曰安潤孫以文臣今又衰老不能騎馬而今爲咸鏡北道節度使甚不合請以南道節度使柳聃年給加以代傳曰安潤孫雖能撫民不能馳馬固可改也然非柳聃年則其無他人乎臺諫常言濫加之弊今又特加可乎柳洵等回啓曰特加等事雖無言者固當愛惜然近來邊事多有可慮柳聃年通政已久且有物望雖加一資何猥濫之有傳曰予非不重北道也且非惜一資也若於朝廷無過聃年之人則可授嘉善而代之

〔參〕○命以(中略)兩界越境斥堠事收議于大臣大臣議啓曰(中略)兩界越境斥堠行之已久但邊將恐被虜則得罪遂廢而不爲彼賊之來矇然不知以致敗失今後斥堠人雖或被虜其邊將勿罪何如傳曰皆依所啓

三年三月

〔參〕○戊午御朝講領事柳順汀曰慶興府使趙潔本不能射野人所見處當以有物望者差遣持平金安國曰近來邊備虛疎趙潔不合物望司中亦

欲啓之上曰遞差

三年四月

壬辰○咸鏡道觀察使狀啓以撫夷堡被擄人刷還事拘留南訥兀狄哈等六名于慶興府而放其二名入送則領兵還來屯于江邊語曰畢放還拘留人不爾汝吾里等捉歸設計是怯我以兵威也其桀驁不遜可知請勿放還仍令拘留督使刷還且當以擧兵討罪嚴辭答之從之

三年五月

戊戌朔○咸鏡道觀察使馳啓曰澄乃世居城底有同編氓再犯國禁當依律詳覆然非我土人決死罪似未穩廣議何如柳洵等議澄乃拘囚困苦今已七年意必懲艾況非我國人不可依律科斷宜杖一百決放仍諭之曰爾罪至重在法當死然聖上卽位務施恩澤從輕處決爾可盡心效順圖報國恩以此行移何如從之

三年六月

〔參〕庚寅○柳順汀獨啓臣聞咸鏡道比年失農民多流亡存者亦皆無食今年水損亦無秋成之望軍資數少邊費亦多無他轉移處野人漸强盛吾民漸衰耗誠爲可慮救荒諸事請令觀察使預先措置傳曰馳書于觀察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

使救荒節目令磨鍊以啓

三年八月

○辛巳御朝講(中略)(知事)宋軼曰臣以遠接使往還平安道時聞在廢朝多定貂皮等物于邊氓邊氓得之無由必以牛隻貿易於野人至今因循爲弊已久若一朝禁止則恐有邊釁故守令欲禁而未果也又義州人民必以馬匹貿段子於唐人此亦成風已久難以禁止今牛則盡歸於野人馬則盡入於唐人甚不可也其令觀察使節度使痛禁(領事柳)順汀曰廢朝時皮物必求於野人不得則守令亦被重罪雖知其弊而不能禁止且護送軍托以逢賊以其所騎馬必反賣而還云又聞北道人民饑荒太甚求鹽海邊以牛隻反賣於野人憚官吏禁止必乘夜以往因爲野人所擄轉賣於深處野人云如此則非徒牛馬人物亦甚可慮(下略)

辛巳○傳曰平安道人民馬則與唐人貿易綾段牛則與野人貿易皮物至爲不可今後痛禁事下諭于觀察使政院啓曰若令觀察使禁止則一時之令必不能遽革積累之弊收議大臣嚴立法禁何如傳曰可

中宗實錄　卷七

三年十月

○辛巳御朝講〔中略〕領事柳順汀曰臣聞中國欲置婆娑府與義州黔同島相近土地沃饒嚮者州民耕食後爲野人所掠遂禁其耕今則中國設東八站賊路阻絕宜使州民耕墾其地主將帥軍往來以備賊若中國復置府先入則我國不敢與爭臣每欲啓達而不敢請廣議處之又聞兩界儲備虛耗將士乏食移粟餉軍轉輸亦難屯田所以資兵食古人所重今麟山鎭防禦事歇而屯田荒廢軍食不給請擇差本鎭僉使或別遣閑官董水卒治屯田視其勤慢爲之賞罰則初年所食雖仰軍資一耕之後當食其出試驗於此如其便易於江界等處並依此例各設屯田以給軍糧臣計以爲便知事洪景舟曰

順汀之言救弊之大者也臣素不知兩界之事然兵食不可不預備且東八站與我境土相望義州人或有舍館於遼東往來者臣恐與上國交構生禍也中國役歇十人同居一人有役則餘皆免役故我國人樂投其土他日釁端尤可慮也

三年十一月

〔參〕壬寅○政府府院君六曹判書以上同議啓曰(中略)一黔同島地品沃饒令民耕墾甚爲利益可於中朝未設堡前許民出入耕作令鎭將率軍看護一麟山鎭屯田事本鎭僉使擇勤謹有幹局者監掌耕作且令本道都事及義州牧使往來檢擧每歲抄該曹考其收穀多寡啓聞行賞罰其耕作節目令該司磨鍊施行(中略)傳曰(中略)皆依允(下略)

三年十二月

丙寅○辛服義童淸禮凌遲處死妻子爲奴籍沒家產(中略)

癸酉〇咸鏡道觀察使高荆山以會寧下甫乙下古堡復立與茂山堡移排形止狀啓曰臣伏覩該曹受敎知臣所啓之意朝廷已知其可去年新堡基審定之後兩堡之民自知其將有生生之理遷徙之望益切每於臣行語臣曰設堡防戍所以爲民也今我兩堡時排之地連因水灾盡爲水損無尺寸可耕之地不得已出耕于二十餘里之地守護往來之際晩出早還何以自盡其耕種乎收穫之利因此不敷遂至失業逃散者過半今不移置則不數年間將爲失守臣以此言觀其勢果若民言矣受敎之後今至二歲之久更無復審之事其故何歟臣晝思夜度今日之擧非可已不已而輕用民力也亦非好大喜功而開拓境土也一以控扼賊路以固藩屛一以且耕且戍俾遂民業今考六鎭之設歲在癸丑設會寧鎭于斡木河又其南二十里之地置甫乙下堡以爲援鎭又其南至富寧鎭境二十里之間

置烟臺二處所行之路所耕之田皆在內地俾無守護之弊其古人設鎭之計眞得其要非後人之所能改矣後至庚辰之歲謀臣獻議革罷甫乙下之堡縮排于豐山內地遂使祖宗開拓之地變爲彼人所居之里其於豐茂兩堡之間只隔一小山耳彼人之徒唯此一山自以爲田獵放牧之所無彼疆(疆カ)我界更出迭入自恣無忌去壬戌年前兩堡人畜再三擄殺以是觀之則初革甫乙下之堡欲其遠賊藪避賊路也反爲賊所侵此古人所謂我能往寇亦能往也脫有豐山失守則將何地而避乎臣聞建置沿革國之大事安土重遷民之常情是故事可已而不已民起怨謗事非得已而爲之民忘其勞況今兩堡移排甫乙下復立之事則事出民情遷徙之苦固不足慮也而又有一大義二大利焉復先祖之舊疆(疆カ)一大義也控賊路之要衝一大利也得耕戍之兩便二大利也不特此也本道乃祖宗肇基之地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www.ertongbook.com